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제 () 선택
----	-------	----------

[빠른 정답표]

1.	⑤	4.	③	7.	②
2.	④	5.	⑤	8.	⑤
3.	③	6.	③	9.	⑤

1. 메타 윤리학과 이론 윤리학의 입장 이해하기

[출제자의 Comment]

메타 윤리학과 이론 윤리학의 교차 지점 check.

[정답] ⑤

[제시문 설명]

(가)는 메타 윤리학, (나)는 이론 윤리학이다.

[선지 분석]

- ① 메타 윤리학에서는 규범적 도덕 원리를 탐구 대상으로 삼는다. 메타 윤리학에서는 이론 윤리학에서 정립해 놓은 도덕 원리의 논리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 윤리학의 주된 목적이라고 본다.
- ② 메타 윤리학에서는 윤리학의 주된 과제가 여러 도덕 관습에 대한 사실적 기술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는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다.
- ③ 이론 윤리학을 비롯한 규범 윤리학에서는 윤리학의 주된 과제가 도덕적 언어의 용례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지 않는다.
- ④ 이론 윤리학에서는 도덕 원리를 정립할 때 논리적 타당성을 고려한다. 이론 윤리학자들 역시 논리적으로 타당한 도덕 원리를 정립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이론 윤리학자들은 연구 과정에서 윤리 이론을 정립할 때 메타 윤리학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기도 한다.

⑤ (다)*는 윤리 이론을 정립할 때 (나)**의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O)

-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번 문항 -

* 이론 윤리학
** 메타 윤리학

⑤ 메타 윤리학과 이론 윤리학 모두 윤리학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본다. 메타 윤리학에서는 가치 중립적인 지식을 추구함으로써 윤리학의 보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지만, 이론 윤리학에서는 가치 개입적인 지식을 추구하면서도 보편화 가능한 도덕 원리를 정립함으로써 윤리학의 보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2. 롤스의 시민 불복종 이론 이해하기

[출제자의 Comment]

롤스의 시민 불복종 이론에서 '종교'만 나오면 다 X일까?

[정답] ④

[제시문 설명]

제시문의 사상가는 롤스이다.

[선지 분석]

① 롤스에 따르면 정당한 시민 불복종은 체제의 안정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체제의 안정에 기여한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함으로써 체제의 안정이 해쳐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인정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시민 불복종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롤스의 입장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민 불복종이 불가피하지 않다는 것이다.

불복종을 함으로써 체제의 안정이 해쳐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인정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시민 불복종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롤스의 입장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민 불복종이 불가피하지 않다는 것이다.

③ 민주적 권위에 맞서는 모든 위법 행위는 체제의 안정을 해친다. (롤스 X)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8번 문항 -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 개인은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자연적 의무를 지니므로 정의로운 법에 따라야 한다. 문제는 부정의한 법을 어느 정도까지 따라야 하는가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시민 불복종 이론은 원초적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당사자들은 정의로운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정당한 시민 불복종을 규정하는 조건들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 롤스,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7번 문항 -

나는 시민 불복종을 흔히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며 비폭력적이며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행위는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에 항거함으로써 정의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고, 부정의를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당한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적 성향은 질서 정연한 사회 속에 안정을 가져다준다.

- 롤스,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6번 문항 -

② 롤스는 종교 단체를 억압하는 정책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롤스에 따르면 종교의 자유는 기본적 자유에 해당하고,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종교적 교리일 수 없다는 것과,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양립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민 불복종을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한 위반이나 제2의 원칙의 두 번째 부분인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반에 국한시킬 것을 내세우는 데는 나름의 추정 근거가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원칙들이 만족되었는지를 판별하기가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원칙들이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자유가 존중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결국 그것들은 제도 속에 선명하게 표현되어야만 할 어떤 엄격한 요구 사항들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소수자들이 투표나 직책을 맡을 권리나 재산을 소유하고 이주할 권리가 거절될 때, 혹은 어떤 종교 단체들은 억압받고 다른 어떤 단체들은 여러 가지 기회가 거절될 때 이러한 부정의는 모든 이에게 분명할 것이다.

- 롤스, 『정의론』 484~485p -

③ 롤스는 부정의한 법률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부정의한 법률이 존재하되 그

2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부정의의 정도가 심각해야 하며, 부정의한 법률을 개선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없어야 한다.

④ 롤스에 따르면 종교적 신념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사람들이 상호 간에 따르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들에 대한 공동 의식에 입각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종교적인 신념이나 사랑에 대한 주장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 롤스, 『정의론』 500p -
* 시민 불복종

⑤ 롤스는 체제 자체가 심각하게 부정의한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보지만,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사회 내에 존재하는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률이나 정부 정책, 제도 따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행위이다.

3. 롤스와 노직의 분배 정의 이론 이해하기

[출제자의 Comment]

“노직은 포괄적 국가 반대!”라는 맹목적 암기에서 벗어나서.

[정답] ③

[제시문 설명]

같은 롤스, 을은 노직이다.

[선지 분석]

① 롤스는 사상 체계의 제1 덕목은 진리이고, 사회 제도의 제1 덕목은 정의라고 본다.

사상 체계의 제1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덕목이다. 이론이 아무리 정치精微하고 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듯이,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 롤스, 『정의론』 36p -

②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배타적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롤스에 따르면 개인은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지닌다.

ㄷ. 갑, 을: 개인은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지닌다. (롤스 O)

-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8번 문항 -

③ 노직은 최소 국가가 정당화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국가라고 주장하면서, 최소 국가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最小國家는 정당화될 수 있는 국가로서는 가장 포괄적인 국가이다.* 이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는 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

-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191p -

*The minimal state is the most extensive state that can be justified. Any state more extensive violates people's rights.

④ 노직에 따르면 개인의 소유 권리는 무정부 상태에다가 아니라 최소 국가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⑤ 롤스만의 입장이다. 노직은 정의의 원칙을 가장 상황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① 같은 정의 원칙이 가장 상황에서의 합의를 통해 구성된다고 본다. (노직 X)

-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13번 문항 -

4. 아리스토텔레스, 로크, 흄스의 국가 이론 비교하기

[출제자의 Comment]

생활과 윤리의 수준을 뛰어넘은 듯한.

[정답] ③

[제시문 설명]

같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로크, 병은 흄스이다.

[선지 분석]

ㄱ. 아리스토텔레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가족은 국가보다 먼저 발생하는 공동체이다.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최초로 형성하게 되는 가장 단순한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보았다.

- 2023학년도 EBS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26p 2번 문항 해설 -

ㄴ. 로크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도, 완전한 평화 상태도 아니며 불완전한 평화 상태이다.

을: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가 아니라 불완전한 평화 상태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불완전한 상태에서 벗어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국가의 구축을 받아들인다.

- 로크, 2020학년도 윤리와 사상 대학수학능력시험 19번 문항 -

ㄷ. 로크에 따르면 재산권은 사회 계약 이전에도 존재하는 자연권에 속한다. 로크는 사회 계약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도 공유물에 노동을 가하면 개인이 해당 재화에 대한 재산권(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본다.

ㄹ. 흄스는 국가가 각 개인을 구속하는 최고의 권력, 절대 권력을 지녀야 한다고 본다.

갑: 국가는 경쟁, 불신, 공명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개인들의 계약에 의해 형성된다. 이러한 국가는 계약자인 개인들의 권리를 양도받아 그들을 구속하는 최상의 힘을 지닌다.

- 흄스, 2015학년도 윤리와 사상 6월 모의평가 19번 문항 -

5. 칸트와 갈통의 평화 이론 이해하기

[출제자의 Comment]

기출문제의 아이디어에 충실한.

[정답] ⑤

[제시문 설명]

같은 칸트, 을은 갈통이다.

[선지 분석]

① 칸트는 평화 조약을 통해 국가 간 적대 행위가 중단될 수 있다고 본다. 단, 칸트가 평화 조약을 통해 모든 전쟁을 영원히 종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② 칸트는 평화 연맹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ㄴ. 갑: 평화 연맹은 국가와 같은 주권적 권력으로 기능해야 한다. (칸트 X)

-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문항 -

ㄷ. 갈통은 직접적 평화를 한 개인에게 직접 가해지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직접적 폭력)이 부재한 상태로, 구조적 평화를 사회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폭력(구조적 폭력)이 부재한 상태로 규정한다.

④ 갈등은 적극적 평화의 실현을 위해 정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치 제도가 부정의하면 구조적 폭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갑, 을: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갈통 O)

-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18번 문항 -

⑤ 칸트와 갈통 모두 진정한 평화를 위해 모든 전쟁이 종식되어야 한다고 본다. 칸트의 영구 평화론은 모든 전쟁의 종식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갈통 역시 모든 전쟁이 종식된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평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전쟁이 종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ㄷ. 갑, 을: 모든 전쟁의 종식은 진정한 평화 실현의 필수 조건이다. (칸트 O, 갈통 O)

-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문항 -

6. 롤스와 싱어의 해의 원조 이론 이해하기

[출제자의 Comment]

싱어의 기본 사상을 바탕으로 처음 보는 선지를 뜯어내 보자.

[정답] ③

[제시문 설명]

갑은 롤스, 을은 싱어이다.

[선지 분석]

ㄱ. 롤스는 빈곤 문제가 해결될 국가라도 질서 정연한 사회가 아니라면 원조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롤스에 따르면 빈곤 여부보다는 인권 보장 여부가 원조 대상을 설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ㄴ. 싱어는 원조 행위가 원조 주체의 행복을 증진할 수도 있다고 본다.

부유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소득의 5퍼센트를 세계 빈곤 퇴치 활동에 내놓는다고 해서, 기부자의 행복이 손상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지출 계획을 다소 수정하기는 해도, 그런 수정의 결과 삶의 질이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돈이 없어 새 옷이나 새 자동차를 구입하지 못한다고, 또는 집을 새롭게 꾸미지 못한다고 남들이 자신을 깔보지 않을까 싶어 돈을 쓰던 것이, 이제는 온전히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도움이 되는 식으로만 소비할 좋은 이유가 생겼다. 이제 돈을 더 잘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더 행복해질 수도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사람들을 돕는 집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보람과 성취감으로 채워 줄 것이기 때문이다.

- 싱어, 2021학년도 EBS 수능완성 106p “자료와 친해지기” -

ㄷ. 싱어는 빈민을 죽도록 방치하는 것이 결과주의적 관점에서 살인과 도덕적으로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서로 유사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굶어 죽어 가는 빈민을 원조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의무라는 것이 싱어의 주장이다.

ㄹ. 롤스와 싱어 모두 원조 대상을 선정하는 일정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다.

7. 칸트, 싱어, 테일러의 환경 윤리 이론 비교하기

[출제자의 Comment]

이미 알고 있는 개념들을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를 해 보자.

[정답] ②

[제시문 설명]

갑은 칸트, 을은 싱어, 병은 테일러이다.

[선지 분석]

ㄱ. 칸트가 부정할 진술이다. 칸트는 인간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는 인간이 수단적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함축한다. 그런데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칸트의 입장에서 수단적 가치를 지니는 모든 존재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ㄴ. 테일러는 인간이 생명체에 끼친 해악에 대한 보상적 정의의 의무를 진다고 본다. 반면 칸트나 싱어는 이러한 주장을 펴지 않는다.

ㄴ. B: 인간은 생명체에 끼친 해악에 대한 보상적 정의의 의무를 진다. (싱어 X, 테일러 O)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1번 문항 -

ㄷ. 싱어와 테일러는 탈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인간이 이성 없는 존재에 대해서도 도덕적 의무를 갖는다고 본다. 반면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인간이 오직 이성적 존재인 인간에 대해서만 도덕적 의무를 갖는다고 본다. 칸트가 제시하는 간접적 의무 역시 궁극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된다.

ㄹ. 테일러가 부정할 진술이다.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가 예외 없이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⑤ 생명체 중에서 내재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 존재가 있는가? (테일러 X)

- 2023학년도 EBS 수능특강 본문 129p 3번 문항 -

8. 칸트, 베카리아, 루소의 형벌 이론 비교하기

[출제자의 Comment]

기출문제 +a.

[정답] ⑤

[제시문 설명]

갑은 칸트, 을은 베카리아, 병은 루소이다.

[선지 분석]

① 루소에게 제기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루소는 사형이 살인범을 시민의 적으로서 처형하는 형벌이라고 주장한다.

② 칸트에게 제기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칸트는 살인범도 그 생득적 인격성에 따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아야 할 인격체라고 본다.

③ 베카리아에게 제기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베카리아는 형벌을 공개적으로 집행하여 수행자가 겪는 고통을 시민에게 보여 줌으로써 시민에게 공포감을 주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범행 의지를 억제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라고 본다.

④ 베카리아가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베카리아에 따르면 국가는 살인범에 대해 형벌권을 가질 수 있다. 베카리아는 국가가 살인범을 사형에 처할 권한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국가가 살인범에 대해 어떠한 형벌권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베카리아에 따르면 국가는 살인범에 대해 중신 노역형을 집행할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⑤ 루소는 국가의 사형 권한이 수행자의 자발적 동의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사회 계약 당시 모든 계약자가 국가가 살인범에 대해 사형 권한을 갖는 데 동의했다는 것이다. 반면 칸트는 수행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국가의 형벌 권한을 설명하는 것을 법의 왜곡이라며 비판한다.

9. 엘리아데의 종교 이론 이해하기

[출제자의 Comment]

처음부터 끝까지, 기출.

[정답] ⑤

[제시문 설명]

제시문의 사상가는 엘리아데이다.

[선지 분석]

① 엘리아데에 따르면 세속의 세계를 기록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 종교적 인간은 이 기록한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종교적 인간은 탄생, 결혼, 죽음과 같은 사건을 겪으며 기록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 그 존재는 이 세계 안에 스스로 현현(顯現)하여 이 세계를 성화(聖化)시킨다. 그러나 세속적 인간은 자신만을 역사의 주체로 생각하며, 초월적 존재를 향한 모든 호소를 거절한다. 그들에게 기록한 존재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최대의 장애물일 따름이다. 그럼에도 세속적 인간은 비록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조차 종교적으로 행동한다. 탄생, 결혼, 죽음을 기리는 의식이 세속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는 종교적 현상이 관찰된다.

- 엘리아데,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7번 문항 -

② 엘리아데에 따르면 종교적 인간은 자연을 초월적 존재의 창조물로 간주한다.

갑: 비종교적 인간은 성현(聖顯)의 시대에서 세속의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의 결과물이다.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성스러운 것으로 상징화된 초월적 존재의 창조물이다. 성화(聖化)된 자연 안에서 인간은 도덕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 엘리아데,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17번 문항 -

③ 엘리아데에 따르면 자연을 성스러운 것으로 간주하는 존재는 종교적 인간이지, 비종교적 인간이 아니다.

② 갑은 비종교적 인간이 자연을 성스러운 것으로 간주한다고 본다. (엘리아데 X)

-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17번 문항 -

④ 엘리아데는 초자연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나무를 단지 나무로 보면서도 동시에 나무 이상의 나무로 보기도 한다. 앞의 나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나무로 속(俗)에 속하며, 뒤의 나무는 독특한 경험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나무로 성(聖)에 속한다. 초자연적인 것은 자연적인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세계는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것을 드러낸다. 따라서 인간이 느끼고, 접촉하고, 사랑한 모든 것은 '성(聖)의 드러남'이 될 수 있다.

- 엘리아데,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3번 문항 -

⑤ 엘리아데에 따르면 성스러운 사물은 사물로서 숭배되는 것이 아니라 성현이기 때문에 숭배되는 것이다.

인간이 어떤 성스러움을 아는 것은 그것이 속된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으로서 스스로를 현현(顯現)하고 보여 주기 때문이다.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성현(聖顯)이라 한다.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결코 단순한 자연이 아니며,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다. 왜냐하면 우주는 신의 창조물이고, 세계는 신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어서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성스러운 돌, 성스러운 나무는 돌이나 나무로서 숭배되는 것이 아니라 성현이기 때문에 숭배된다.

- 엘리아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7번 문항 -

* 확인 사항

○ 해설지의 설명을 정확히 숙지했는지 확인하시오.